



나의 생활 양식을 잘 찾고 이해하는 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이창영 이레네오 신부 |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작년 하반기 한 학기 동안 청년들과 틴스타 수업을 하면서 낯익었던 얼굴들을 올해 상반기 교사 양성 178차와 180차 워크숍을 하면서 다시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무척 반가운 마음에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틴스타 수업을 통해 전해진 가치들이 이들을 교사 양성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끌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성웅 신부님께서 지난달 '성의 상이성과 보완성'이라는 주제로 웹진에 원고를 올려주셨던 것처럼 분명 남성으로서의 성적 특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적 특성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각각의 다른 특성의 강함과 약함을 서로 보완하며 인간은 사랑 안에서 성장과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과 여성으로의 특성만으로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서로 보완해가는 존재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자라왔던 성장 배경 즉 생활양식에 따라 똑같은 남성이지만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되고, 똑같은 여성이지만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성적 메시지, 상대방과 교류하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형성된 이유들을 명료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활양식의 이유를 잘 찾고 이해하는 만큼, 그 같은 길이의 인생을 다른 배경에서 살아오며 갖게 된 다른 생활양식을 가진 타인에 대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청년을 얼마 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늘 TV나 인터넷으로만 보던 연예인을 실제로 보면 갖게 되는 느낌이라랄까. 처음의 어색함을 뒤로 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참석한 워크숍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이 단순히 교리를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의 가르침이었구나'라는 소감과 함께 올해 워크숍이 작년 하반기의 수업보다도 훨씬 깊은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감사의 시간임을 표현하는 청년을 보며 저 역시 기쁨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는 긴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인 만큼 이것을 이해하고 정리해 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은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빙수를 먹으며 청년과 이야기 할 때 듣게 된 말은 저의 마음에도 깊이 남아 심장을 뛰게 합니다. '진짜 사랑이 되고 싶어요'

우리의 생활양식에 대해 이해해가는 여정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아가는 '진짜 사랑'이 되어가는 여정을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 비대면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청년을 만난 날
(오른쪽 이창영 신부)

